

2020년 하반기 거시경제 전망

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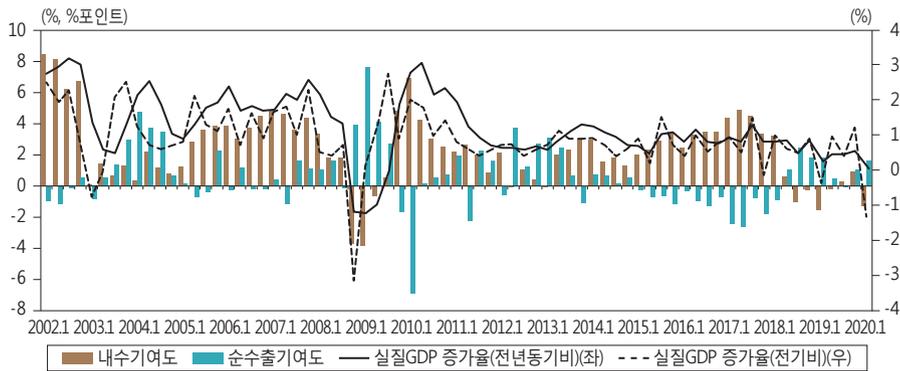
올 들어 국내 실물경기는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이 생산과 투자, 소비 등 실물 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금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추가적으로 크게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하반기에 점차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보이나, 연간 전체로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가는 하반기 이후 세계 원유수급 불균형이 점차 해소되면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나, 연평균 전체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기 침체로 두 자릿수 하락률이 예상된다. 원/달러 환율은 국제금융시장의 안정과 위험자산 기피 현상의 약화 등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이나, 연평균 전체로는 지난해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 예상된다. 2020년 국내경제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 속에서 수출 감소세 지속과 소비의 감소 전환, 투자수요의 제한적 회복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전년 대비 0.1% 수준의 성장이 예상된다. 국내외 공히 코로나19 사태의 전개 추이가 가장 큰 변수이나, 대외적으로는 주요국의 경기동향과 정책효과, 미중 분쟁 추이 등이, 국내적으로는 소비심리 회복 속도와 정부 정책 효과 등이 추가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소비는 대내적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고용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경기 침체로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이후 확장국면을 대비한 투자가 진행되면서 소폭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는 민간부문에서 부동산 규제정책 기조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부진함에 따라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코로나19 사태의 지속 여부가 가장 큰 변수이나, 하반기 들어 중국 등 진정 국면에 접어들 국가들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여 연간 기준 9.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 국내 경기상황 판단

국내 실물경기는 지난해 세계경제 성장 둔화 등의 여파로 성장세가 약해진 가운데, 올해 들어서도 수출 부진의 완화에도 코로나19 확산이 생산과 투자, 소비 등 실물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간소비가 올 1분기에 전년동기비 감소되면서 크게 위축된 모습이나, 설비투자는 증가세로 전환되고, 건설투자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출(통관 기준)은 연초 소폭 회복세를 보이다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조치로 인한 글로벌 교역의 급감과 국제유가 하락 등에 따른 수출단가 급락 등으로 4월 이후 대폭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산업생산은 그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해 오던 서비스업이 코로나19 사태 여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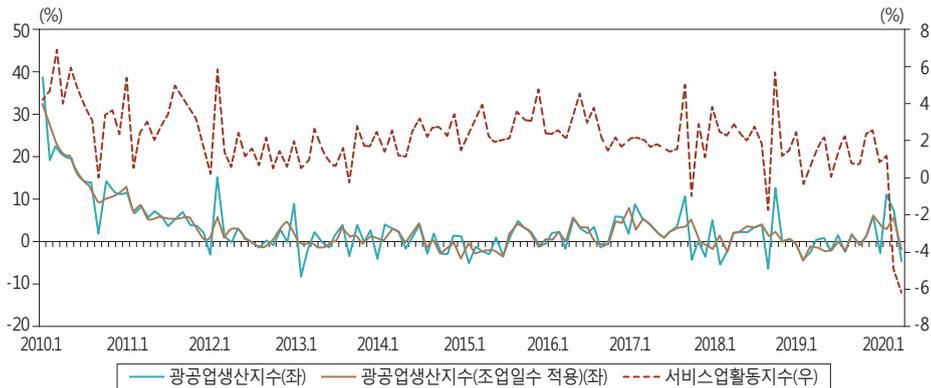
〈그림 1〉 실질GDP 성장률과 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주 : 내수는 민간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의 합.

〈그림 2〉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자료 : 통계청.

〈그림 3〉 경기종합지수 추이



자료 : 통계청.

로 최근에 급락하는 모습이며, 지난해 말부터 상승세를 이어나 광공업생산 증가율도 4월 이후 역시 하향세로 전환되었다. 경기지표는 선행지수와 동행지수 모두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반락하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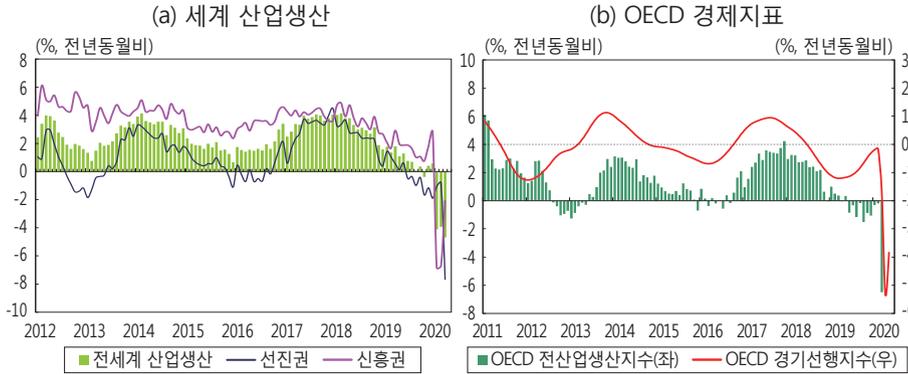
2. 대외여건 전망

(1) 세계경제

세계 실물경기는 지난해 말까지 선진권과 신흥권의 약세가 이어진 이후에 올 들어서는 신흥권을 시작으로 급격한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선진권은 미국이 연초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급락하면서 전년 대비 0%대 성장률에 그치고 있으며, 일본 역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유로존은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신흥권은 중국이 지난해 하반기에 6% 수준까지 성장률이 떨어지고, 올 1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브라질과 러시아도 지난해 1%대 성장률로 떨어진 이후에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세계 산업생산은 2019년 하반기에 전년 동기비 증가율이 0%대로 떨어진 이후에, 올 들어서는 -4%대 수준까지 급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추가로 크게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하반기에 점차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보이나, 연간 전체로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경제는 트럼프 정부의 대대적인 경기부양책과 연준의 적

〈그림 4〉 세계경제지표 추이



자료 :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표 1〉 세계 권역별 및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와 전망

단위 : %, 전년동기비(전기비 연율)

| | 2018 | 2019 | | 2020 | 2020(f) | | | | |
|-------------------|------|------|-----|------|---------------|-------|-------|--------------------|-------|
|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1분기 | IMF | 세계은행 | OECD ²⁾ | |
| | | | | | | | | 표준 | 비관 |
| 세계 | 3.6 | | | 2.9 | | -3.0 | -4.1 | -6.0 | -7.6 |
| 선진권 ¹⁾ | 2.2 | 1.7 | 1.7 | 1.7 | - | -6.1 | -7.0 | -7.5 | -9.3 |
| 미국 | 2.9 | 2.5 | 2.2 | 2.3 | 0.2 (-5.0) | -5.9 | -6.1 | -7.3 | -8.5 |
| 유로존 | 1.9 | 1.3 | 1.2 | 1.2 | -3.1 | -7.5 | -9.1 | -9.1 | -11.5 |
| 일본 | 0.3 | 0.9 | 0.5 | 0.7 | -1.7 | -5.2 | -6.1 | -6.0 | -7.3 |
| 신흥권 | 4.5 | | | 3.7 | | -1.0 | -2.5 | -4.6 | -6.1 |
| 중국 | 6.6 | 6.3 | 6.0 | 6.1 | -6.8 | 1.2 | 1.0 | -2.6 | -3.7 |
| 세계교역 | 3.8 | | | 0.9 | | -11.0 | -13.4 | -9.5 | -11.4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0.4); World Bank(2020.5); OECD(2020.6).

주 : 1) 선진권의 수치는 OECD 국가들의 성장률을 의미.

2) 표준은 Single-hit 시나리오, 비관은 Double-hit 시나리오 기준.

극적인 통화완화 정책 등에 힘입어 안정세를 회복할 전망이다. 높은 실업률과 소득 감소 등이 회복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유로권에서도 서비스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경제활동의 완전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예상되며, 중국은 비교적 빠르게 안정세를 되찾아가는 상황에서도 해외 수요 부진은 리스크 요인이다. 세계경기 향방의 주요 변수들로는 코로나19 사태의 전개 양상과 더불어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 해소와 주요국들의 정책효과 발현 지속 여부 등이 주요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 유가 및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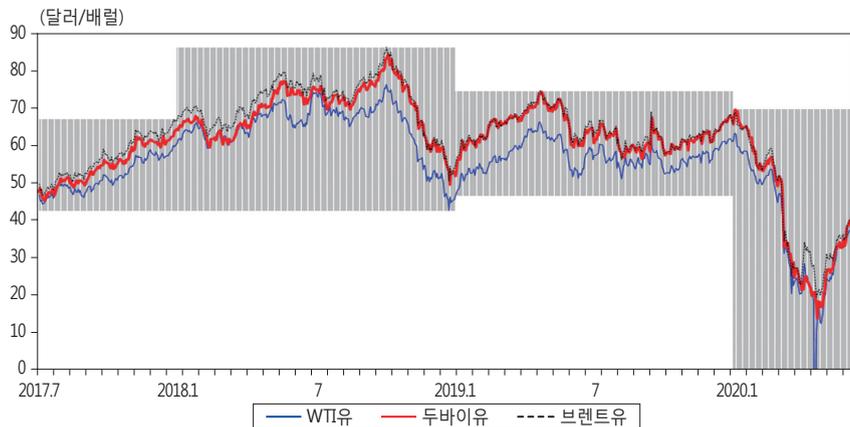
국제유가는 연초 중동정세의 불안 요인과 미·중 무역협상의 1단계 합의로 상승세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1월 말 중국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하락세로 전환된 후, OPEC의 추가감산 합의 결렬(3월 5일)과 사우디의 증산 결정에 이어 WHO의 글로벌 팬데믹 선언(3월 11일) 등으로 4월에는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13달러 수준까지 급락하였다. 이후 두 차례의 OPEC+의 감산 합의와 비OPEC 국가들의 감산 결정 등의 공급 축소 요인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 등 수요축 요인으로 유가는 상승세로 돌아섰으나, 전년대비로는 급락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향후 유가는 전세계 원유수급 불균형이 점차 해소되면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나, 연평균 전세로는 두 자릿수 하락률이 지속될 전망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사우디와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 산유국들의 추가감산 결정, 수요 측면에서는 중국의 원유수입 증가와 주요국들의 경기부양책 및 경제활동 재개 등이 유가상승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중 무역 갈등의 불확실성과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기 침체 가능성 등으로 유가상승 폭은 제한될 전망이다.

2020년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상반기 배럴당 40.8달러(전년 동기비 -37.7%), 하반기 43.5달러(-29.4%)를 기록하여 연평균 42.2달러(전년대비-33.7%)로 예상된다.

원/달러 환율은 올들어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내외 불안정성이 상당한 가운데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발 코로나19의 확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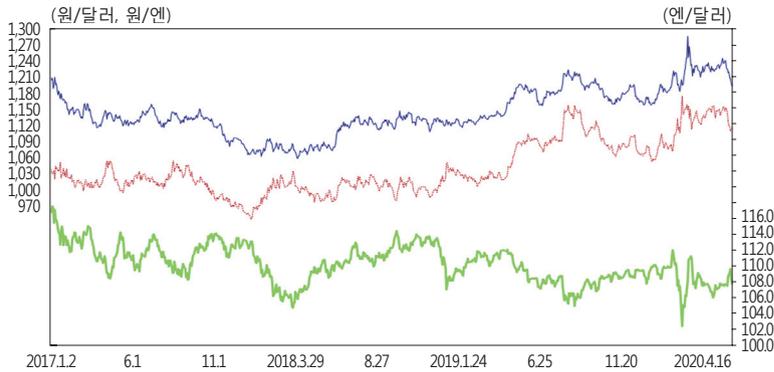
〈그림 5〉 국제유가 추이



자료 : 한국석유공사.

주 : 음영 부분은 연간 변동 범위(최소값~최대값)임.

〈그림 6〉 원/달러, 원/엔(100엔), 엔/달러 환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되었던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두 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와 무제한 양적완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3월 19일) 등으로 다소 진정되었다. 2분기 들어서는 코로나19 확산세 둔화와 주요국들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등이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유가 불안과 세계경제 둔화 우려 등의 요인들로 인해 전반적으로는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2020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은 국제금융시장의 안정과 위험자산 기피 현상의 약화 등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이나, 연평균 전체로는 지난해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 예상된다. 국내 코로나19 사태의 진정과 경기부양책의 효과로 인한 경기 회복 가능성,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양적완화 정책 등은 원화가치 상승 요인(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작용할 것이나, 코로나 2차 확산과 미·중 무역갈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원/달러 하방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 평균 1,210원(전년동기비 5.5%), 하반기 1,192원(1.9%)으로, 연간으로는 1,201원(전년대비 3.7% 상승) 내외가 예상된다.

3. 2020년 국내경제 전망

(1) 경제성장

2020년 국내경제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 속에서 수출 감소세 지속과 소비의 감소 전환, 투자수요의 제한적 회복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전년대비 0.1% 수준의 성장률이 예상

된다. 수출이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가 예상되고, 소비는 상반기에 감소한 영향으로 연간 전체로도 감소세가 예상되며, 투자는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세로 전환 되겠지만 건설투자가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하반기에 전년동기비 감소세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이나, 상반기 중 두 자릿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연간 전체로는 전년과 비슷한 감소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연간 수출은 전년대비 9.1%, 수입은 6.4% 감소하고,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보다 줄어든 219억 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연간 전체 기준 감소세가 불가피해 보이며, 설비투자는 소폭 증가하면서 연간 전체 기준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소비는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급감한 여파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가 예상되나,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공공일자리 확대, 재난지원금 등으로 감소폭이 제한되면서 하반기에는 전년도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세계경기 침체로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이후 확장국면을 대비한 투자가 진행되어 소폭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건설투자는 민간부문에서 부동산 규제정책 기조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인해 부진세가 예상됨에 따라 감소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외 공히 코로나19 사태의 전개 추이가 가장 큰 변수인 가운데 대외적으로는 주요국의 경기 동향과 정책 효과, 미·중 분쟁 추이 등이, 대내적으로는 소비심리 회복 속도와 정부 정책 효과 등이 추가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표 2〉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 전년동기비, %, 억 달러

| | 2018 | | 2019 | | 2020 | | |
|--------------------|-----------------|-----------------|------------------|------------------|------------------|-----------------|-----------------|
|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실질GDP | 2.7 | 1.9 | 2.2 | 2.0 | -0.7 | 0.8 | 0.1 |
| 민간소비 | 2.8 | 2.0 | 1.9 | 1.9 | -3.8 | -0.0 | -1.9 |
| 설비투자 | -2.2 | -12.2 | -2.2 | -7.5 | 1.2 | 2.4 | 1.8 |
| 건설투자 | -3.9 | -5.2 | 0.0 | -2.5 | -0.2 | -1.4 | -0.8 |
| 통관 수출 (억 달러, %) | 6,049 (5.4) | 2,711 (-8.6) | 2,711 (-12.0) | 5,422 (-10.4) | 2,421 (-10.7) | 2,509 (-7.5) | 4,930 (-9.1) |
| 통관 수입 (억 달러, %) | 5,352 (11.9) | 2,526 (-4.9) | 2,508 (-7.0) | 5,033 (-6.0) | 2,350 (-6.9) | 2,361 (-5.8) | 4,711 (-6.4) |
| 무역수지 | 697 | 186 | 203 | 389 | 71 | 148 | 219 |

자료 : 산업연구원(KIET).

(2) 민간소비

민간소비는 지난해 1%대 수준의 증가율을 유지하였으나, 올들어 대내외 여건의 악화로 인한 소득 감소와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서비스 부문의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 1분기 -4.8%라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1분기 중 실질총소득(GNI)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기 위축과 수출물가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비 보합을 나타내었으며, 소매판매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비 2.9%나 감소하였다. 최근 들어 취업자수의 감소폭이 확대되고, 고용률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등 고용 여건도 소비에 부정적이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기준선(100)에 크게 못 미치는 80 이하로 떨어지고, 가계부채 역시 누적되고 있는 점도 가계소비 증대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0년 민간소비는 대내적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고용여건이 악화되며 소비자심리 역시 위축되는 상황에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완화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데다, 소상공인 대출이 확대되는 등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하반기 민간소비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민간소비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

| | 2018 | 2019 | | | | 2020 | | |
|---------|------|---------------|---------------|--------------|--------------|------|----------------|---------------|
|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1분기 | 4월 |
| 민간소비 | 3.2 | 1.4 (0.1) | 1.8 (0.7) | 1.6 (0.2) | 1.9 (0.9) | 1.7 | -4.8 (-6.5) | - |
| 소매판매액지수 | 4.3 | 1.6 (0.9) | 2.0 (0.5) | 2.2 (0.3) | 3.4 (1.9) | 2.4 | -2.9 (-6.4) | -2.2 (5.3) |
| 실질 GNI | 1.6 | -0.4 (0.1) | 0.0 (-0.2) | 0.0 (0.4) | 0.8 (0.6) | 0.1 | 0.0 (-0.8) | -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안은 계절조정 자료의 전기비.

(3) 설비투자

설비투자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세계경기 둔화로 2018년 2분기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비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이는 작년 1분기 심각한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측면이 있으나, 부문별로 보면 그동안 계속해서

〈표 4〉 설비투자 추이

| | | 2019 | | | | | 단위 : % |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2020 1분기 | |
| 전년 동기비 | 설비투자 | -17.4 (-8.5) | -7.0 (2.6) | -2.3 (1.7) | -2.0 (2.6) | -7.5 | 7.3 (0.2) | |
| | 기계류 | -22.2 (-6.1) | -13.4 (0.4) | -7.3 (-1.3) | -0.3 (7.1) | -11.5 | 4.3 (-2.1) | |
| | 운송장비 | 3.0 (-14.7) | 13.8 (8.9) | 14.4 (9.6) | -6.1 (-8.2) | 5.3 | 16.9 (-2.1) | |

자료 : 한국은행.

주 : () 안은 계절조정계열의 전기비 증감률.

부진했던 기계류 설비투자가 1분기에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2분기 들어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 또 설비투자 선행지수에서도 2~3월에 반등하였던 기계수주액과 설비투자 조정압력이 4월에 급락하였고, 제조업 설비투자 전망 BSI 수치가 크게 하락하는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2020년 설비투자는 세계경제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나 기저효과(2018년 이후 설비투자 감소세)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향후 확장국면을 대비한 설비투자가 진행됨에 따라 전년보다 1.8% 증가할 전망이다. 반도체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시장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초격차 전략을 위한 대규모 투자계획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디스플레이도 LCD에서 OLED 생산으로의 전환 계획에 따라 생산설비의 확장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아직 진행되고 있으나 하반기 이후 세계경기가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반기 설비투자는 1.2% 증가하고, 하반기에는 2.4% 증가하는 상저하고(上低下高)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4) 건설투자

건설투자는 2018년 2분기부터 계속해서 감소하다가 2019년 4분기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올해에도 1분기에 전년 동기비 4.2% 증가하였다. 토목건설은 올해 확대 재정정책 기조에서 SOC 예산의 증액으로 1분기 중 전년동기 대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여 건설투자의 회복세를 주도하였다. 반면, 주거용 건물건설은 2019년 4분기

〈표 5〉 건설투자 추이

단위 : %

| | | 2019 | | | | 2020 |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
| 전년 동기비 | 건설투자 | -8.1 | -3.0 | -2.7 | 2.6 | 4.2 | |
| | 형태별 | 건물건설 | -8.2 | -6.5 | -5.4 | -2.8 | -0.3 |
| | | 주거용 건물 | -12.7 | -11.8 | -14.0 | -9.0 | -4.0 |
| | | 비주거용 건물 | -2.4 | -0.8 | 3.9 | 3.7 | 4.0 |
| | | 토목건설 | -7.8 | 5.9 | 5.9 | 15.7 | 16.9 |
| | 주체별 | 민간 | -9.0 | -6.9 | -5.1 | -3.2 | -1.3 |
| 정부 | | -3.3 | 8.6 | 12.4 | 22.2 | 33.9 | |
| 전기비 | 건설투자 | -0.7 | 2.9 | -6.4 | 8.0 | 0.5 | |
| | 형태별 | 건물건설 | -1.3 | -1.0 | -5.6 | 6.2 | 0.5 |
| | | 주거용 건물 | -4.5 | -2.2 | -5.5 | 3.8 | -0.2 |
| | | 비주거용 건물 | 2.1 | 0.2 | -5.6 | 8.5 | 1.2 |
| | | 토목건설 | 0.8 | 13.1 | -8.3 | 12.4 | 0.3 |
| | 주체별 | 민간 | 1.3 | -1.2 | -5.6 | 3.6 | 1.2 |
| 정부 | | -8.4 | 19.9 | -9.1 | 23.6 | -1.9 | |

자료 : 한국은행.

주 : 2020년 1분기는 잠정치.

이후 감소세가 줄었으나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며, 비주거용 건물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주춤하였다.

하반기 건설경기의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건설투자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이 코로나19의 영향이 발효되기 시작한 3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부동산 심리지수도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건설투자는 민간부문 건설이 부동산 규제정책 기조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이어짐에 따라 전년보다 0.8%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극대화하기 위해 올해 SOC 예산의 조기 집행을 계획함에 따라 건설투자는 상반기 0.2% 감소, 하반기 1.4% 감소로 상고하저(上高下低)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5) 수출입

연초 소폭 회복세를 보이던 수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로 주요국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글로벌 교역 규모의 급감과 유가 하락 등에 따른 수출단가

급락으로 4월 이후 대폭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수입도 반도체 경기회복 기대에 따라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자본재 수입이 증가했으나, 유가 급락 등에 따른 에너지자원 수입의 급감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수출을 단가와 물량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1분기 중 미·중 무역분쟁 합의와 대중 수출 증가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던 수출물량이 4월 이후 주요국의 봉쇄조치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여파로 큰 폭의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하락세를 보였던 수출단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유가 하락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산업별로는 컴퓨터 수출만 큰 폭 증가하고,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가 소폭 감소한 반면, 석유제품·석유화학·디스플레이·자동차 및 부품·무선통신기기 등 대부분 품목의 수출에서 전년동기비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재택근무 환경 조성 등으로 서버용 SSD수요가 증가하면서 컴퓨터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 단가의 회복과 서버용 수요 증가로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반면, 석유제품·석유화학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수요 급감 및 산유국간 감산을 둘러싼 이견으로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수출 감소세가 대폭 확대되었다. 각국의 생산중단 및 이동제한으로 인한 조업차질과 판매망 중단, 소비심리 약화 등으로 인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가전 등도 감소폭

〈표 6〉 산업별 수출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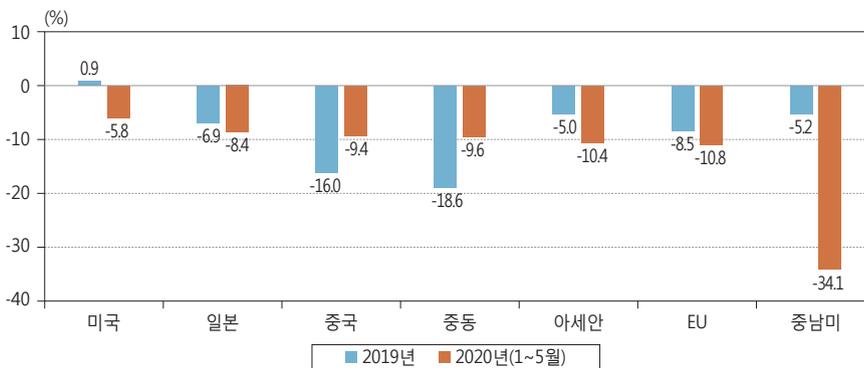
| | 수출 증가율 | | | 수출 비중 | | |
|--------|--------|-------|-----------|-------|------|-----------|
| | 2018 | 2019 | 2020(1~5) | 2018 | 2019 | 2020(1~5) |
| 컴퓨터 | 17.2 | -20.6 | 78.5 | 1.8 | 1.6 | 2.7 |
| 반도체 | 29.4 | -25.9 | -1.5 | 20.9 | 17.3 | 19.1 |
| 선박 | -49.6 | -5.3 | -8.5 | 3.5 | 3.7 | 4.1 |
| 일반기계 | 10.2 | -1.9 | -10.2 | 8.9 | 9.7 | 9.9 |
| 무선통신기기 | -22.7 | -17.6 | -12.5 | 2.8 | 2.6 | 2.4 |
| 가전 | -18.3 | -3.6 | -17.7 | 1.2 | 1.3 | 1.2 |
| 섬유류 | 2.5 | -8.0 | -18.2 | 2.3 | 2.4 | 2.3 |
| 철강 | -0.7 | -8.6 | -18.7 | 5.6 | 5.7 | 5.4 |
| 석유화학 | 11.9 | -14.8 | -21.5 | 8.3 | 7.9 | 7.2 |
| 자동차부품 | -0.1 | -2.5 | -25.4 | 3.8 | 4.2 | 3.5 |
| 자동차 | -1.9 | 5.3 | -26.1 | 6.8 | 7.9 | 6.6 |
| 디스플레이 | -9.9 | -17.0 | -26.1 | 4.1 | 3.8 | 3.0 |
| 석유제품 | 32.3 | -12.2 | -33.8 | 7.7 | 7.5 | 5.5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이 대폭 확대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둔화와 조업중단 등 봉쇄조치로 인해 대부분 지역에 대한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 미국이 상대적으로 소폭 감소하였고 아세안, EU, 중남미에 대한 수출이 두 자릿수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대중 수출은 코로나19 사태 발발이후 생산 중단 및 이동제한 등으로 인해 급감하였고, 미국과 대아세안 수출도 1분기 증가세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4월 이후 수출이 급감하였다. 중남미에 대한 수출도 조업 중단과 신규 투자프로젝트 연기 등으로 인해 두 자릿수 이상 대폭 감소하였다.

〈그림 7〉 지역별 수출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수입은 반도체 경기회복 기대에 따른 제조용 장비 등 자본재 수입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유가 급락 등으로 원유 등 1차산품의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고, 경기부진으로 소비재 수입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한국의 경우 성공적인 방역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조업중단이나 이동제한 등의 영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자본재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출에 비해 수입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

2020년 하반기 수출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여부가 주된 변수이나, 중국 등 진정국면에 접어든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나타나면서 감소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연간 수출은 9.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수습과 경기부양책으로 경기회복세가 나타나 수출이 소폭 반등하겠으나 미·중 무역분쟁 재발 우려 등으로 불확실성도 높아질 전망이다.¹⁾ 2019년 수출 부진(-10.4%)에 대한 기저효과와 주요국 생산재개에 따른 반도체 단가 및 물

1) 미·중간 무역분쟁이 다시 격화되면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로 인해 중국의 IT관련 제품과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생겨 우리 수출에 상대적인 반사이익이 나타날 수 있다.

량 회복세 유지, 유가 회복에 따른 석유제품 단가 상승 등으로 하반기에 수출 감소세는 완화될 전망이다.

수입은 수출 감소와 국내경기 부진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겠지만 2019년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와 국제유가 회복세 등으로 하반기 들어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연간 6.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전체 교역 규모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수입보다 수출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219억 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신현수

동향분석실·연구위원
ktshs@kiet.re.kr / 044-287-3140

〈주요 저서〉

- 글로벌 무역 정세하에서 한국 무역구조의 변화와 수출확대 전략(2017, 공저)
- 국가별·경제권별 수출결정요인 분석을 통한 수출전망모형 구축 연구(2017, 공저)